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나다면 환영·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0.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

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

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

CNN 인터뷰...김정은 향해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중국 배제 안 돼...국가관계, 칼로 자르듯 '친구다, 아니다' 나눌 수 없어"

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 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봉 기자

한은총재 "가계부채 위험 많이 사라져...집값은 잘 모르겠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금방 꺾일 것으로 생각 안해...금리로 조절 불가"

내달 인하 가능성 묻자 "불확실성 크다"... "주가 버블 수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이 총재가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향

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통위 내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의 인하 대 동결 의견은 지난 7월 10일 4대 2에서 8월 28일 5대 1로, 이날 다시 4대 2로 변화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에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28일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p)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홀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음 달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생각에 많은 변수가 있어 어떤 결정을 할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영향 등을 거론했다.

번번이 통화정책을 발목 잡는 집값 문제에 관해선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지 판단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 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두고 "한 달 사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승원 기자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들겠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 041-554-0008	논산2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81, 1층	☎ 041-741-0664
천안2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 041-566-3702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 042-840-5719
천안3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 041-574-0007	당진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 041-358-3250
공주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 041-855-2242	금산	금산군 금산을 후곶전길 53, 2층	☎ 041-751-5555
보령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 041-936-5388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 041-835-3330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 041-547-5927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 041-952-1650
아산2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1, 2층	☎ 041-546-1101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 041-943-0613
서산1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 041-665-1235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 041-633-2333
서산2	서산시성연면오사리1790태성빌딩2층	☎ 041-662-1237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6층	☎ 041-333-9606
논산1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 041-734-0064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 1층	☎ 041-675-0313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